

2024.04.24.

인문학적 성찰을 반영한 진로체험 융합교육의 가치와 철학

발표자: 백성혜(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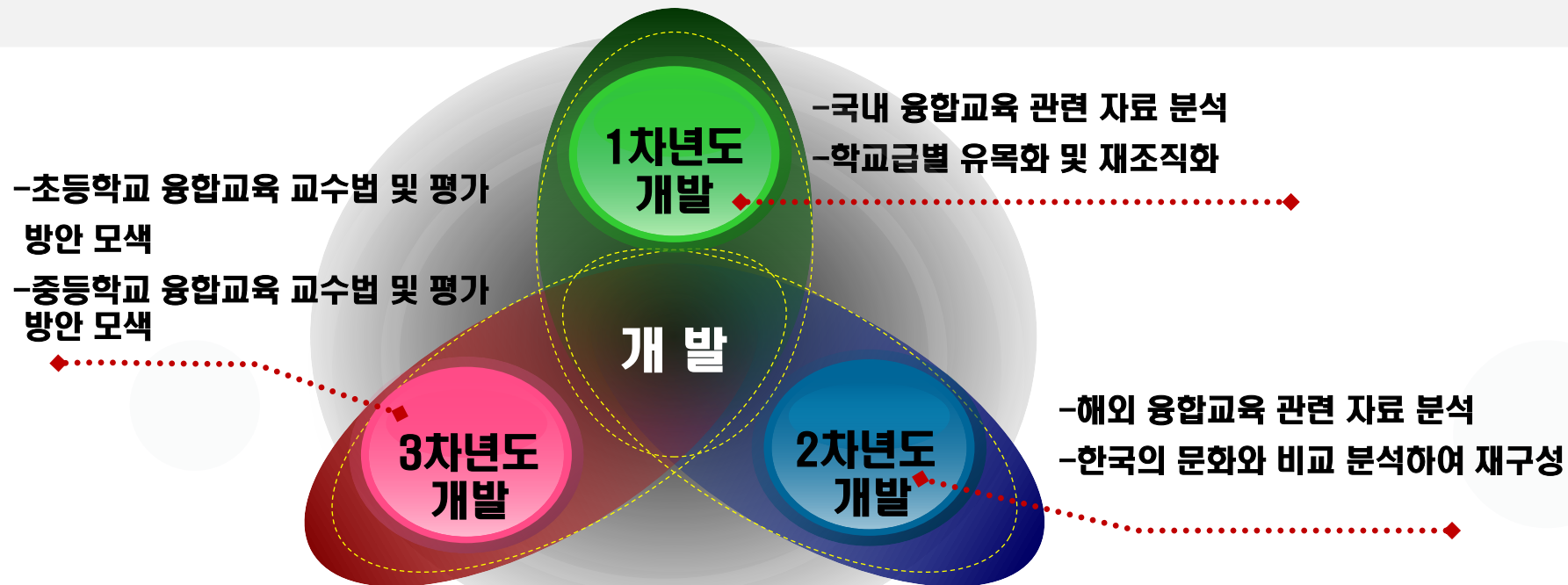
한국교원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미래 시대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대비 시급

과학중심의 STEAM 교육을 넘어서 인문, 사회, 과학, 공학, 예술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으로 전환 필요

이에 따라 새로운 교사상의 요구

미래의 교사인 예비교사 교육의 변화가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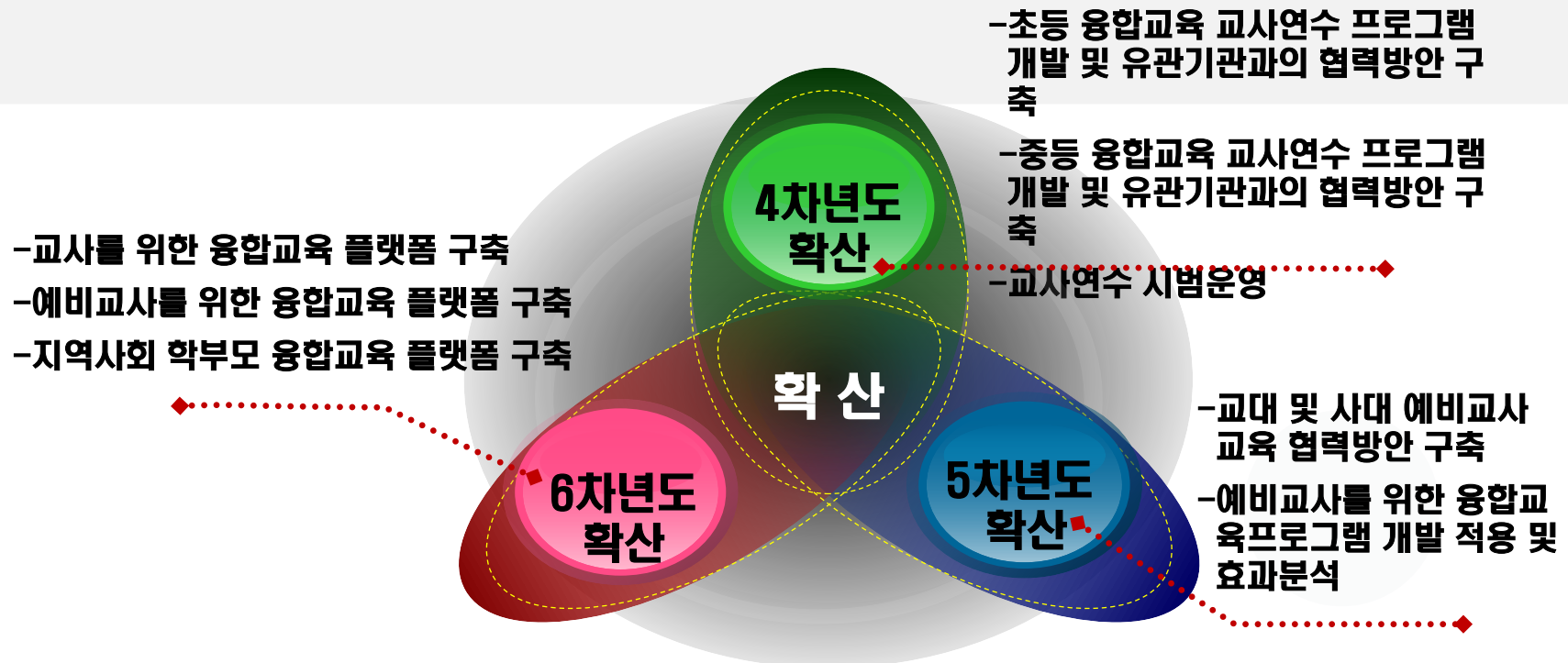


미래 시대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대비 시급

과학중심의 STEAM 교육을 넘어서 인문, 사회, 과학, 공학, 예술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으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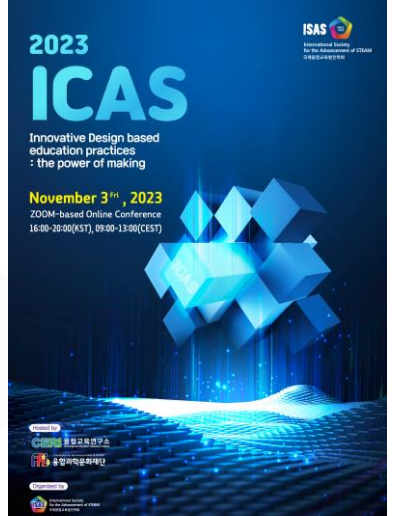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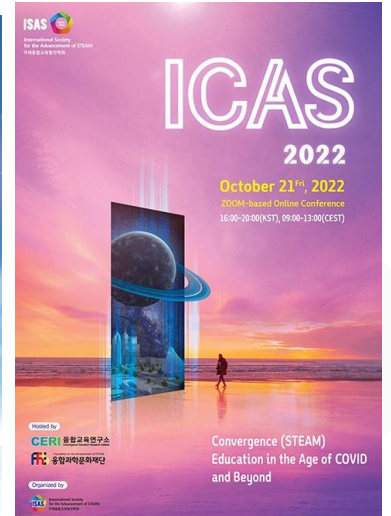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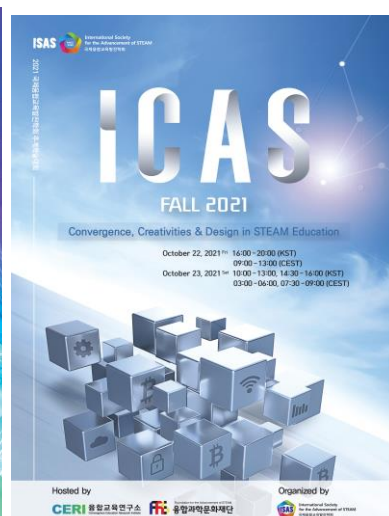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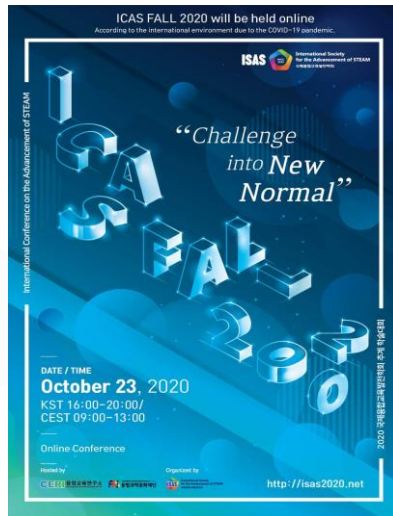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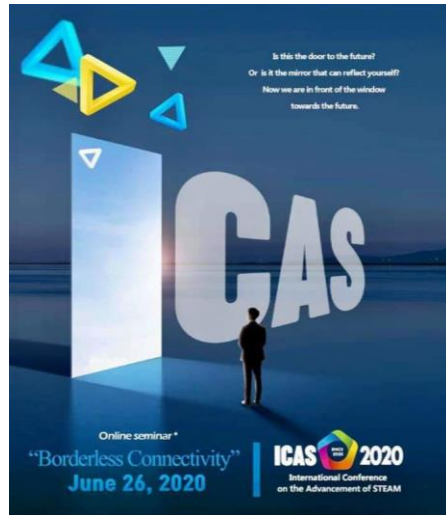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새로운 교사상의 요구

미래의 교사인 예비교사 교육의 변화가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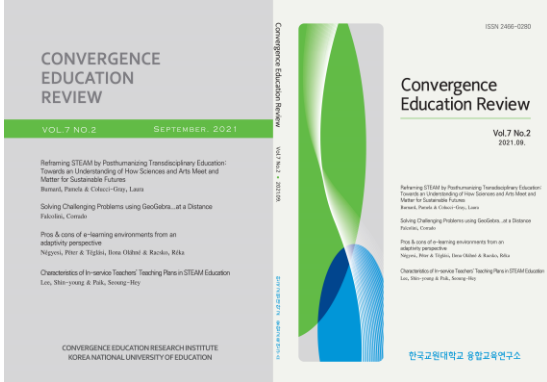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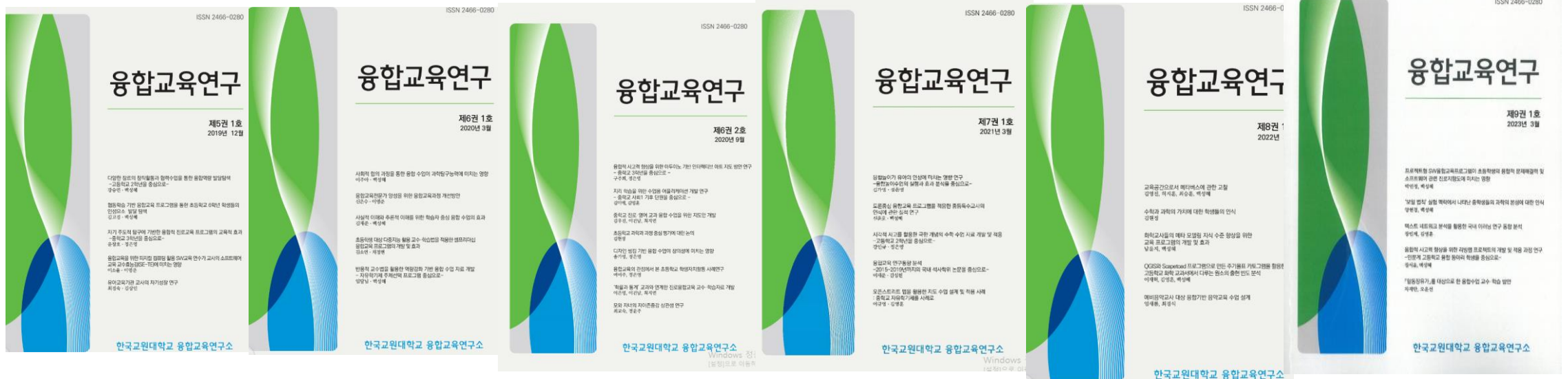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운영

- 2020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14개국, 100여명 학자 이상 참석
- 2020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10개국 60여 명 학자 참석
- 2021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13개국 200여 명 학자 참석
- 2021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15개국 184 명 학자 참석
- 2022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16개국 200여 명 학자 참석
- 2023 국제융합교육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13개국 250여 명 학자 참석



융합교육연구 논문집 국문판 영문판 출간



- 2021년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JAMS) 보급 사업(주관: 한국연구재단)에 선정되어 2021년 6월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음.

- 피상적인 진로교육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진로를 찾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 증가(니트족 증가)

OECD 주요국 니트족 비중

2020년 기준 OECD 37개국 중 13개국 비교

니트족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만 15~29세 청년

주요국 순위

이탈리아	23.5%
멕시코	22.1
한국	20.9
스페인	18.5
프랑스	15.0
호주	14.2
캐나다	13.6
미국	13.4
영국	12.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 니트족 비중



연말뉴스

장예진 기자 / 2021121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점점 꿈이 없어지는 경기 학생들... "실질적 진로 교 지원 절실"

‘장래희망 있다’ 응답, 2017년 83.9%→2021년 75.3%
수원 청소년 1763명 중 46.8%도 꿈이 없다고 대답
전문가 “체험 중심 진로 교육 등 실질적 지원 필요”
도교육청 “진로 교육 강화에 힘써 다양한 경험 제공”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 등록 2023.01.06 06:00:00 | 1면

04. 현재 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직업이 있는지 여부⁴⁾

- 전체적으로 ‘현재 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2017년 83.9%, 2019년 79.3%, 2021년 75.3%).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19년, 2021년 모두 ‘현재 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직업이 있는가?



[청소년 발언대] 제 역할 못하는 학교 진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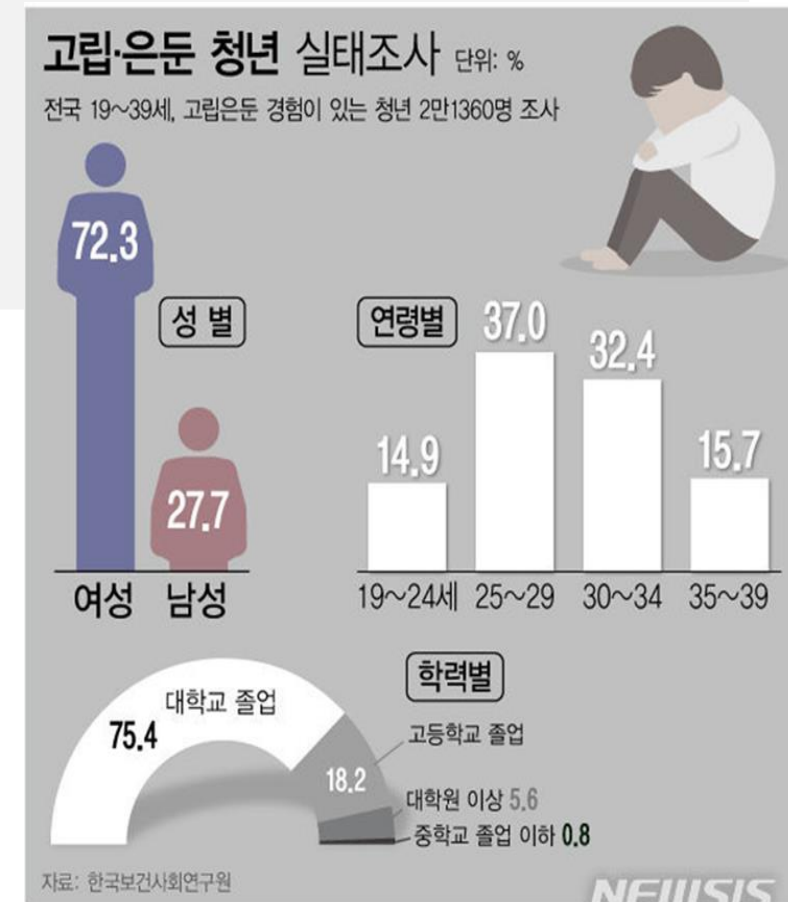
우선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이론으로 시작해 이론으로 끝난다.

필자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가장 놀란 것은 진로수업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각 직업군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소개해준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컴퓨터나 책에 나오지 않는 직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의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본인의 꿈에 대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마치 직장에 가본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 각각의 직업에 대해 몸소 체험해 볼 수도 있었다. 왜, 초등학교에는 이런 교육제도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다.

두 번째 진로교육에 있어 직업군은 학생들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은 ‘경찰’, ‘군인’, ‘의사’, ‘변호사’ 등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지정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은 굉장히 다양하고 특색이 있다.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직업군이 아닌 다른 직업군을 꿈꾸는 친구들은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적기 위해 결국 자신이 원하는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아무 교육이나 들을 수 밖에 없다. 원하는 직업군을 미리 신청받고, 원하는 모든 직업군을 초청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수요에 따른 직업군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급식 메뉴도 의견을 받는 것처럼...

- 구체적 준비없이 학과를 결정하고 자신 의사와 상관없는 결정된 진로에 좌절하고 진학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급증 (고립은둔청년 증가)
- 특히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음 (여학생 친화적 교육 필요)



- 급증하는 다양한 이주 및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부족(포용적 진로교육 필요)
- 진로교육은 **문화적 배경도 고려하여야** 하며,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타자에 대한 혐오**(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 교류)를 극복하는 교육이 필요 (다문화 학생 혐오, 노인 혐오, 장애인 혐오 등은 모두 **면역체계**의 작동임을 인식)

교육부, 3년마다 다문화 학생 국적·교육여건·진로 조사한다

등록 2024.04.16 11:24:49

☐ ☐ ☐ ☐ 가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4.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교육부는 3년마다 이주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의 국적 등을 비롯해 진학·진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관련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교사·의사·운동선수·군인 등 일부 직종에 한정된 진로교육으로 다양한 진로탐색이 어려움
(학교 진로교육 개선 필요)

연합뉴스 |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민주당 #유엔 #김철 #근로자 #박상대

뉴스홈 | 최신기사

중학생 38%·고등학생 27% "희망하는 직업 없다"

송고시간 | 2022-12-19 12:00 日本語



김수현 기자
기자 페이지

희망직업 없다는 중고생 절반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희망 직업 1위 초등생은 운동선수, 중고생은 교사

<표 1> 학생의 희망 직업 - 상위 10개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9.8	교사	11.2	교사	8.0
2	교사	6.5	의사	5.5	간호사	4.8
3	크리에이터	6.1	운동선수	4.6	군인	3.6
4	의사	6.0	경찰관/수사관	4.3	경찰관/수사관	3.3
5	경찰관/수사관	4.5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2.9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3.3
6	요리사/조리사	3.9	군인	2.7	뷰티디자이너	3.0
7	배우/모델	3.3	시각디자이너	2.6	의사	2.9
8	가수/성악가	3.0	요리사/조리사	2.6	경영자/CEO	2.5
9	법률전문가	2.8	뷰티디자이너	2.3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2.5
10	만화가/웹툰작가	2.8	공무원	2.3	요리사/조리사	2.4

인문학적 소양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의 부재

문제점

- 모든 진로선택에는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스스로 의미있는 지식을 모으고 진로와 학업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형성되지만, 전문적 지식과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현 진로교육에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
-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자기 역량을 기르지 못하면 진로 및 취업 후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수시로 전직하는 등 니트족이나 고립은둔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해결방안 제안

-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전통적 사고의 틀을 버리고, 모든 진로에 인문학적 사고와 이공학적 사고가 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자존감의 회복 등의 경험으로부터 폭넓은 진로 선택 기회를 가짐

진로 강사들의 진로 분야 전문성 부족 및 학부모 진로 인식 부족

문제점

- 진로교육 강사들이 실제 자신의 진로 보다는 지식 수준에서 진로교육을 피상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지 못함.
-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경험해도 학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로교육 성공이 어려움



해결방안 제안

- 전문적인 대학교 연구소 수준의 전문가들이 관련 진로를 소개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선발 및 교육
- 전문 강사들의 교육적 관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교사를 보조 강사로 교육 및 학교 현장에 투입하여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진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운영
 - ❖ 대학연구소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진로를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으며, 멘토링 운영도 가능
-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진로탐색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진로 결정 과정에 부모의 이해를 돕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주 및 다문화 배경 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진로교육 부족

문제점

- 이주 및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교육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이주 및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정보부족 등으로 학교 수업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게 맞는 진로교육을 차별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학생 뿐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교육관계자, 학부모들의 다문화 교육 참여가 필요함.

해결방안 제안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쿵다 인문학’을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도록 독촉하기보다 자기 고유성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원과 MOU



여학생들의 진로 포기 비율을 줄이기 위한 여성친화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부족

문제점

- 성 역할 고정관념, 자신감 부족, 접근성과 정보의 부족 등의 문제로 여학생들은 진로선택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부족함
- 전통적으로 '여성적'으로 간주되는 직업은 제한되어 있고, 여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해결방안 제안

- 다양한 직업에서 성공한 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하여 여학생들에게 넓은 진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여학생들이 보다 깊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과 성찰을 통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고교학점제의 초점

- 경쟁과 선발 중심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포용사회의 학습 체제 지향
- 상대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
-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학교 서열화로 이어지는 한계를 넘어서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수평적 다양화 구현

학업설계 주체로서 학생 지원

- 교사가 중심이 되는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학생 스스로 의미있는 지식을 모으고 진로와 학업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교육체제 설계
-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교육, 진로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에 초점
- 적극적·능동적 학습자로서의 학생들의 수요를 존중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구현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책무성 부여

학생들이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 인문학적 소양과 밀접한 관련

01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02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03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04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05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06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한국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대학 내 인문사회중점연구소 중 학생교육·교사연수 경험을 축적한 연구소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진로탐색 기회 제공, 신산업분야 다양한 진로체험 제공,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일반교원·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연수 등을 진행.
- 진로를 문과와 이과로 구분하는 전통적 사고의 틀을 버리고, 모든 진로에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학적 사고가 융합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인문·예술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하는 학제간 융합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연수 등을 기획한다. 특히 학생들이 진로 선택 이전에 인문·사회·예술 관점을 통해 자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자존감의 회복 등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

- 한국인문사회연구소 협회의 홈페이지에 개발한 진로 프로그램과 활동 내용을 탑재하고, 4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권, 전라제주권)으로 구분하고,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및 강의 신청을 받아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소속 연구소들과 매칭하여 전국 규모로 다양한 융합적 진로교육을 시행.
- ※ 지역에 국한하여 대학과 학교를 매칭하지 않고, 학생들이 전국의 인문사회연구소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고르게 경험.
- ◦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진로·직업교육 관련 사업이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특정 대학의 자원에 한정되어 있거나, 프로그램의 차별화 부족, 중복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대학 인문사회연구소들이 인문·예술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하는 학제간 융합적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연구소를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

- 융합교육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소속 170개 대학연구소와 함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연번	대학교 명	연구소 명	연번	대학교 명	연구소 명	연번	대학교 명	연구소 명	연번	대학교 명	연구소 명	연번	대학교 명	연구소 명
1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4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27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연구센터	42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55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15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43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	56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3	가천대학교	휴먼보건과학융합연구소	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9	경희대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	44	고려대학교(세종)	공공정책연구소	57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4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7	경기대학교	관광융합연구소	30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	45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58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8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31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46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및융합연구센터	59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6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19	경북대학교	미주유럽연구소	32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47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6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7	강원대학교(삼척)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20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33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48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61	동국대학교	CML연구소
8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21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9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62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9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22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3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50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63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10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23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36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51	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	64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11	건국대학교	PAP연구소	24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37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52	단국대학교	한국고전문학텍스트연구소	66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2	건국대학교	다언어다문화연구소	25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8	고려대학교	한류융복합연구소	80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94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3	건국대학교(글로벌)	지식콘텐츠연구소	26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	39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81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9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40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53	단국대학교	통합과학교육연구소	67	동의대학교	디그니티스교양교육연구소	82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96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4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54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68	동의대학교	영화트렌스미디어연구소	83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97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8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98	순천향대학교	특수아동교육연구소
												107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10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0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10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
												111	이화여자대학	미래교육연구소

대학연구소를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

- 전국의 대학교에는 다양한 분야의 대학연구소가 있으며, 연구 분야도 미래사회의 신산업분야와 연결됨(박사급 인력만 2천 명 이상)

85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 및 인프라연구소	99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12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142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55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86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100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130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143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156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87	선문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발전경제연구소	101	아주대학교	삶의질연구소	114	이화여자대학교	에듀테크융합연구소	131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소	144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157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88	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10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1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13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5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15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89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103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117	인하대학교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	1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46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159	한림대학교	건강과뉴미디어연구소
91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104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1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60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64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168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92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05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119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61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166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169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93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106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120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62	한신대학교	종교와 과학센터	167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17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21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34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	147	한국교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교육연구소	16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122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135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48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123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36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149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124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137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150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125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138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소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126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9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152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27	전북대학교	쌀·술·문명연구원	140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53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128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141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15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소속 대학연구소 명단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역량

지역사회 및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실적

- 융합교육연구소는 다양한 협력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지역사회 및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연도	기관
2016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20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
2018	사)전국교사힐링상담센터
2019	사)4D프레임(대한민국 발명체험교구)
2019	사)한국점자 도서관(청송교육문화진흥회)
2019	하늘소리 오카리나
2019	(주)씨드(다가치 나눔 교육 플랫폼)
2019	인천여자고등학교
2019	깨봉수학(이얼쿠기 주식회사)
2020	사단법인 아름다운배움
2021	충북교육발전소
2021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허브
2023	(주)쓰리디타다
202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3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3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2024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2024	단국대학교 통합과학교육연구소
2024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2024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20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등연구소
2024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지역 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협업 추진실적

- 융합교육연구소는 강원·충청권 교육청은 물론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충남진로융합교육원 등 교육청 산하기관과도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함



충북교육청과 협업



충북교육연구정보원과 협업



충북단재교육연수원과 협업



세종시교육청과 협업



세종시교육청교육원과 협업



충남진로융합교육원과 협업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과 협업

- 전국 대학연구소 박사급 전문인력을 통해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MOU



이날 협약식에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의예과로의 진로 희망 치우침 현상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진로 교육의 개선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문·사회·예술 분야에도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알게 하고,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는 계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교육이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은 “한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더욱 창의적이고 통섭적인 인재가 필요해졌으며, 의학·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인문·사회·예술 분야 연구소들의 역량이 국내 인재 육성과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계와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한국 대학 신문, 2023년 11월 23일, 김준환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와의 MOU



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청소년 진로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임연서 기자 | ⌚ 입력 2024.05.02 16:38 | 💬 댓글 0

🖨️ 🔗 📄 📧 📱 📺 📻 📡 📶 📷 📸 📹 📺 📻 📡 📶 📷 📸 📹

인사협, 인문예술·사회과학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예정
양 기관, 이공계 쏠림 현상 해소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 추진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회장 강성호 순천대 교수, 이하 인사협)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컨벤션홀에서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사협은 인문예술·사회과학 분야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에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과 연계한 청소년 인문소양 강좌 운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서울형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교수·박사급 인력도 인사협 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교육청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와의 MOU

양 기관은 입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대·공대 등 이공계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학계의 자성을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양 기관은 현재의 이러한 편향이 사회적 편견 이외에 청소년 진로교육에서의 다양성 부족에서 비롯됨을 공감하고 균형추를 맞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인사협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초·중·등 진로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일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첫 기반이 마련됐다.

인사협은 “그동안 일부 교사나 소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해왔던 인문·예술·사회과학 분야의 진로교육에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교육연구인력들이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초·중·등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안요청서

2024. 3.

□ 사업목적

- (추진목적) 소외지역·계층 학생 대상 진로체험 기회 제공으로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전년도 '진로체험버스'운영 사업 및 '대학진로탐색캠프'운영 사업 통합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사업비) 운영기관별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선정규모) 총 4개 기관 선정 예정

순	권역(안)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예정 지역(안)
1	수도권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서울, 인천, 경기
2	강원·충청권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3	경상권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4	전라·제주권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 연계

Ⅰ 초광역권 특화·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수	- 진로체험 프로그램 10종 이상 개발
프로그램 개발 분야 및 내용	- 초광역권 특화 발전 분야 및 지역 특성·여건을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1종 이상 필수 개발 - 학교급(초, 중, 고)을 고려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개발 진행 시, 학교급별 프로그램 개발 개수 균등 배분 필요

Ⅱ 지역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 진로체험버스 및 진로탐색캠프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소외지역·계층 학교 우선 지원)
	운영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 신청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 운영하며, 가급적 11월 이내 프로그램 운영 종료 요망
	운영조건	- 진로체험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꿈길(www.ggoomgil.go.kr)' 활용 ·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일정등록, 운영희망 학교 매칭 등 일괄 꿈길을 통해 진행 - 운영기관별 개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분야와 관련 있는 '지역 내 기관(기업, 연구소, 정보교육원, 과학교육원, 박물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 → 진로탐색캠프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로현장방문 프로그램' 2회 이상 기획·운영
통계 관리	운영목표	- 진로체험버스: 200회(수혜 학생 수 5,000명) 이상 수혜학교 총 100개교 이상 운영(학교급 및 지역별 균등 배분 필요) - 진로탐색캠프: 2회(수혜 학생 수 180명) 이상 운영
	성과수집 및 실적관리	- 월별(이메일)/분기별(공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료 제출 · 수혜자 수, 참가학교 소재지 특성, 교사 학생 만족도 등 요구자료(별도 양식 제공 예정)제출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각 1회 이상 참여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컨설팅단) 운영 예정 -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참여 · 추가보고서 제출 예정기가 7~8월 최초보고서 제출 예정기가 12월 (변동가능)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분야)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 유망분야 신산업 및 과학기술, 지역 특화 분야 연계 등

- (지역 연계)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분야* 등 권역별 해당 지역의 산업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1종 이상 개발 필수

*[참고2]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분야 (출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자료(2023.11.))



- 강원권: 천연물 의약소재 상용화, 그린수소 저장 운송 충전 기기
- 충청권: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 대구·경북권: AI기반 지역특화로봇 개발,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 플랫폼
- 전북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탄소복합소재 사업화
- 부·울·경: 수소산업벨트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 광주·전남권: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 제주권: 청정 생물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 디지털 융합 관광산업 활성화

- (신산업 연계)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미래 유망 직업, 첨단 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참고3] 신산업 분야, 미래 유망 직업·진로 예시

빅데이터 분석가, SNS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개발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 유전학상담전문가, 로봇 윤리학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3D프린팅 모델러, 모바일 헬스케어코디네이터, 홀로그램 전문가, 원격진로코디네이터, 의료용 로봇전문가, 드론촬영 조종사, 사물인터넷 개발자, 스마트공장코디네이터, 인간공학기술자, 크라우드펀딩매니저, 핀테크전문가, 온라인 튜터, 스마트안전관리사, 데이터거래전문가, 농촌 디지털마케터 등

2024년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결과 안내

〈과학교육팀, '24.4.30.(화)〉

□ 선정결과

연번	운영권역	선정기관
1	수도권	한국과학창의재단
2	경남	한국과학창의재단
3	강원·충청권	한국과학창의재단
4	전라·제주권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체들이 선정됨. 오히려 사업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진로교육의 기업화가 더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함

인문학적 성찰을 반영한 진로체험 융합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널리 확산
하여 미래 인재들이 인문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하는가?

감사합니다